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평화를 만듭니다

요한복음 4:3-42

1. 마음 열기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2020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은 상황에서 1년이 연기된 끝에 열리게 된 하계 올림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보여 준 열정과 땀은 지치고 힘겨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슴 뜨겁고 몽클해지는 시간을 선사해주었습니다. 문득 33년 전인 1988년 한국에서 개최된 '1988 서울 올림픽'을 떠올려 봅니다. 다음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의 공식 주제가 '손에 손 잡고'(Hand in Hand)의 동영상(링크 또는 QR 코드 참조)과 가사입니다.

링크: [Koreana - Hand in Hand | Opening Ceremony Seoul 1988 | Music Monday - YouTube](#)



한글 가사	영문 가사
1.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의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 잡고 2.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하늘 향해 팔 벌려 소중한 아침 밝혀주는 평화 나서자	1. See the fire in the sky We feel the beating of our hearts together This is our time to rise above We know the chance is here to live forever For all time Hand in Hand we stand all across the land We can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in which to live Hand in Hand we can start to understand Breaking down the walls That come between us for all time Arirang 2. Everytime we give it all We feel the flame eternally inside us

<p>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 잡고</p>	<p>Lift our hands up to the sky The morning calm helps us to live in harmony For all time Hand in hand we stand all across the road We can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in which to live Hand in Hand we can start to understand Breaking down the walls That come between us for all time Arirang</p>
--	--

잘 알려진 대로, 냉전으로 인해서 각각 ‘반쪽짜리 올림픽’으로 열렸던 1980년의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 올림픽 이후, 냉전 종식을 상징이라도 하듯 ‘1988 서울 올림픽’은 소위 ‘동서 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평화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마음을 여는 토의

- (1) 오늘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평화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 (2)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평화로운 공생과 협력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2. 생각 쌓기

1) 평화의 자리

‘1988 서울 올림픽’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스포츠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년 전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우리는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1991년 탁구 남북 단일팀 이후 27년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였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결정에 여러 가지 면에서 찬반 논쟁도 뜨거웠지만,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아래의 동영상(링크 또는 QR 코드 참조)이 그 당시의 감동을 전해줍니다.

링크: <https://youtu.be/4163oPn8xS8>



평화의 자리는 곧 화해와 하나됨의 자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나 미워하는 마음, 나와는 다른 생각의 차이와 득실을 계산하는 태도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때 평화의 자리도 시작됩니다.

2) 분쟁과 다툼의 원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과 상황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자국의 이익, 민족/인종과 종교의 차이, 이념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대개 이러한 원인적 요소들은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은 아니지만,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도 ‘민족/인종 청소’(ethnic cleansing)를 동반한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와 군사 쿠데타로 인한 혼란의 상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로힝야족은 이슬람교 계열의 소수민족으로서, 이들에 대한 박해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다수의 사상자는 물론이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탄압으로는 25,000명의 사망자와 18,000명의 성폭행 피해자 그리고 75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낸 2017년 8월 25일의 학살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총책임자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이었는데, 바로 그가 지난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군부는 쿠데타 감행의 이유로 2020년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의 축소에 대한 군부의 우려가 그 이면에 있습니다. 이로써 유엔(UN)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꼽았다고 하는 로힝야족에 대한 지속적인 학살 및 ‘민족 청소’ 외에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부에 저항하는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체포됨으로써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1과 참조)과 상호 인정과 존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2과 참조)을 망각할 때, 그리고 이 망각의 상태가 한 개인을 넘어, 한 공동체를 넘어, 한 국가와 민족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로 확장될 때, 평화의 자리는 사라지고 분쟁과 다툼만이 남습니다.

3. 말씀 속으로: 장벽을 넘어서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이나 분쟁 및 다툼의 원인들과 관련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요한복음 4장 3-42절을 읽고 아래의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봅시다.

1) 민족과 지역 차별의 장벽을 넘어 소통으로(3-19절과 27절)

예수님이 유대인을,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을 대표한다면, 이 이야기는 수백 년간 지속된 갈등과 반목의 역사로 인해서 생긴 높고 두터운 장벽을 가운데 두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7절)는 진술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2) 이념과 사상 차이의 장벽을 넘어 공감으로(20-26절)

‘생명의 물’이라는 주제를 놓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진행되던 대화의 주제는 20절에서 갑자기 예배와 예배 장소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21, 23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한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으로 여겨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그분을 사마리아인으로 업신여기고는 했습니다(“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요 8:48]).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시나요?



4. 삶 속으로

1) 마음으로 생각해보기: ‘평화의 자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교댄스 댄서인 피에르 둘레인(Pierre Dulaine)은 춤이 두 민족 혹은 두 커뮤니티의 정치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매개체임을 확신하며 유대인과 아랍인 아이들이 함께 춤을 배우는 댄스교실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의 댄스교실은 민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춤으로 소통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서로 다른 민족과 커뮤니티에 속하던 아이들은 함께 춤을 배우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Dancing in Jaffa’(2013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링크 또는 QR 코드 참조).

링크: [Tribeca FF \(2013\) - Dancing In Jaffa Official Trailer #1 HD - YouTube](#)





●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축제는 소통과 공감을 넘어서 교류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의 자리입니다. 둘레인의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외에 경제, 문화, 학술 분야 등도 이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봅시다.

2) 마음으로 행동하기: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

한국 사람이 아니면서도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에 함께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

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 투입됨으로써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경험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우리 정부는 22개국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진단 키트, 방역 물품 등을 담은 ‘생존 박스’를 선물함으로써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에티오피아의 강뉴(Kangnew=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부대 출신의 참전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감동을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조국에서 9,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낯선 나라로 파병되었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1974년 군부의 쿠데타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그들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에서도 퇴출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1991년에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지만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90세인 생존자 132명(2020. 5. 기준)과 그들의 가족에게 마스크 4만 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p>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마스크 전달...”희생에 감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YouTube (연합뉴스TV 2020년 5월 21일[8분 59초 분량])</p>	<p>6·25 특집다큐 영웅의 귀환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E01 170624 720p NEXT - YouTube (6·25 특집 다큐 “영웅의 귀환”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2017년 6월 24일 KBS 방영[48분 50초 분량])</p>
	

오늘날에도 분쟁과 고통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과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예: 국경없는의사회)이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예: 국제엠네스티)입니다.

● 이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보면 어떨까요?

(링크: 후원 | 국경없는의사회 (msf.or.kr) 또는 <https://amnesty.or.kr/donation/#pledge>)

3) 마음으로 소원하기: ‘남과 북의 평화’

정전(停戰), 휴전(休戰), 종전(終戰)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p>링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4116</p>	
--	---



남과 북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68년만에 전쟁이 종식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정전협정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길에 작은 힘을 보태보면 어떨까요?

<p>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전 세계 1억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링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p>	
--	--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을 혹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과 상호 인정과 존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할 때, 그리고 이를 소통과 공감으로 드러낼 때 평화는 개인과 개인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를 넘어, 국가/민족과 국가/민족 사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